

#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이완구 충남지사 한국지역신문협회 명예회장패 수상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김성조 국회의원, 김태환 국회의원, 이한성, 이철우 국회의원 당선자, 박보생 김천시장, 차봉주 농협 김천시지부장, 경북도의원, 및 김천시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5일 김천파크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사)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 김천신문 대표, 이하 한지협) 정기총회 및 발행인·기자연수회·제3회우수기자상 시상식에 참석해 김중기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장패를 받았다. 또한, 언론의 발전을 위한 특강도 있었다.

이 지사의 명예회장패 수여는 그동안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특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외교세일즈를 통해 충남도 발전 및 나라경제에 많은 역할과 언론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임으로서 정론을 표방하는 전국 250여 회원사로 이뤄진 풀뿌리민주신문 전국 연합체인 한지협으로부터 많은 갈채와 존경을 받아왔다.

이날 이 지사는 특강을 통해 "요즘 화장을 하지 않는 '뽕얼굴'이란 뜻으로 '생얼'이 유행한다"며, "가식없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요즘 젊은 세대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매스미디어에 자고 일어나 화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연하면 무능력한 자치 단체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와 반대로 화장까지 했는데 봐주는 사람 하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한 얼마나 낭비일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것을 잘 전달해주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다"고 말하며, "화장이 잘못됐으면 지적해주고, 생일이 부족하면 감사주고, 이렇게 해서 무대의 배우와 이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화와 분권의 시대에 같은 지역적 이해와 기반을 공유하는 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의 상호협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연계성으로 "예전 우리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도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다. 아주 지방을 경시하는 사상이라 말할 수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지역'은 '서울'에 대칭되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로 서울과 지방이 아니라 이 이야기로 지역은 '구성원들



4월 25일 김천 파크 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2대 김중기 회장 취임 및 정기총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특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한국지역신문협회 명예회장패를 수상했다.

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이지 지방이 아니라 사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매스미디어로 지역신문은 보도, 논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에게 교육·오락·광고 등의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애청심을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함"이라며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지역정치나 행정, 선거의 비판자, 감시자 역할" "지역사회의 화제나 소광정보 등의 생활정보 제공으로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작은 뉴스, 나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우리' 소식에 대한 각증을 해소" "중소상인들의 효과적이고 값싼 광고매체로서의 기능" "지역주민에게 정보 접근권을 충족시켜 줘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이나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역신문 발전 방향으로 "고향민에게 내 고장 신문보내기 운동"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줘야 함" "주민들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지역신문협회는 지역신문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사나 관계자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사·심의·징계하는 기능 강화해야 함" "한국지역신문협회는 앞으로 지도기능과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기능도 함께 강화해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동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충남지역협회-李鐘純 부장 jsoon82@hanmail.net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가 있다. 그것은 맷시, 솜씨, 맷시, 맷시입니다. 맷시, 맷시, 맷시, 맷시입니다.

첫째, 맷시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죽는 기를 신비하게 살려 주는 곳입니다. 기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남편이 "여보! 내가 다 알아!"라는 말 한마디가, 산더미 같은 아내의 피로를 다 누트뜨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솜씨가 필요합니다. 솜씨는, 자기 외의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는 사려 깊은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무시하면

###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

서, 다른 식구의 성향에 자신을 철저히 맞추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성은 살리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태도가, 바로 가정에 요구되는 솜씨입니다.

셋째, 맷시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죽는 기를 신비하게 살려 주는 곳입니다. 기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남편이 "여보! 내가 다 알아!"라는 말 한마디가, 산더미 같은 아내의 피로를 다 누트뜨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마음씨가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설거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항상 "나는 설거지처럼 쉽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 하면서 설거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가 무엇

이 그리도 재미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행동에는 "당신은 해야 할 보다 큰 일에 신경 쓰세요!"라고 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것처럼 식구들은 고마워할 일들이 많입니다.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서로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잃지 않는 마음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은 아내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는 나의 진실한 친구였다.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건 간에, 그 말이나 행동으로 격정을 끼친 일이 없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생의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회한을 가지기 전에, 그가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밝은 빛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높여 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 작가 미상 - (문의 011-342-5834)

## 제6회 포천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 제8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반월아트홀



포천시는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포천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제6회 포천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했다.

포천에서 주최하고 포천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다른 풍성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와 함께 반월아트홀에서 주관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아주르와아스마르) 상영이 선행을 더했다.

'희망찬 세상! 우리들의 꿈이 펼쳐진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

번 잔치는 오전 11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과학아 놀자!' '미술아 놀자!' '민속아 놀자!' '행복아 놀자!'의 테마별 놀이공간을 만들어 약 22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페이스 페인팅, 피에로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매직 풍선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리얼포트 공간에서는 가족사진을 해 줬다.

아울러 포천소방서에서는 소방기구 전시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포천경찰서에서는 경찰서 홍보와 실종아동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전력 포천지점 직원들은 미아 방지를 이음표를 달아주는 봉사활동을 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포천건강강화지원센터에서 가족 관련 그리기대회가 열리고 포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심리검사를 실시했다. 인형극 등 관내 동아리들이 펼치는 각종 공연들도 볼거리를 더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반월아트홀 광장과 반월아트홀 앞 도로를 통해 '차없는 거리' 행사로 추진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4@paran.com

### 목회단상

## 어머니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가정의 달 5월이다. 또한 어머니 날도 있다. 1957년 노벨상을 받은 불란서의 소설가 엘버트 카뮈(1913~1960)에 관한 일화이다.

그는 태어난 지 한달 만에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었다. 그의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과부가 된 그녀는 빈민굴로 이사해서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 동안 가정부로 일했다.

또한 그는 청각장애로 아들과 과의 대화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뮈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였다. 카뮈는 노벨상을 수상한 후 그의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어머니와 말로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대해 주시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스런 눈동자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언제나 제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세상엔 묘약이 많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 효력 있는 약은 없다.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다.

모세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요케벳이 사무엘에게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는 그 배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말자.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거룩한 이름이 있을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은 존재인 어머니를 창조했다. 어머니 새는 새끼를 기르기 위해 힘써 만든 동자들

1년 뒤에 떠난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때문에 아프셨던 상처들을 깨끗하게 잊어주시길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도 어머니는 언제나 곁에 있음을 기억하자.

비록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재산이 없고, 내게 잘해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만이라도 감사하자.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잠언서 23장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 전기안전관리 등불...!!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변압기 정밀점검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